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한없는 주님의 자비를 인하여
(회중)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우리 구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사 우리로 살게 하시니
(회중)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시여,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끄시니
(회중)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목사) 삼위일체되신 하나님, 이제와 영원까지 주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회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삼위일체주일 성만찬>

성찬식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성령3/ “가면을 벗은 영혼의 계절” / 사 32:15-18; 갈 5:16-23; 마 7:16-20 >

✠ 교회소식 ✠

㉠ 예배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깃든 하늘의 평안과 찬양의 기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예배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성령강림절 시리즈설교 “성령, 내 안에 시작된 새로운 세상”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5월24일	내 안의 거룩한 침입	겔 36:25-27	고전 2:10-12	요14:16-18
5월31일	사랑하기에 아프게 찌르시다	속 12:10-13	살전 1:4-8	요16:7-11
6월 7일	가면을 벗은 영혼의 계절	사 32:15-18	갈 5:16-23	마 7:16-20
6월14일	길 잃은 세대를 위한 나침반	느 9:19-24	엡 1:17-20	요16:12-15
6월21일	질그릇들의 오케스트라	출 31:1-6	고전12:4-11	눅 22:24-27
6월28일	아빠라 부르는 밤	을 2:28-32	롬 8:14-17	요15:26-16:3

㉡ 전체제직회 ; 6월 7일(주) 2부 예배 후, 본당

㉢ 엘림아카데미 : 6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 "공예교실 : 천연 밀랍초 만들기" (*지방선거 임시공휴일 관계로 한 주 연기하여 진행합니다)

㉣ 새가족교육 제1강 : 31일(오늘) 12시 40분, 2층 회의실 "부르심과 응답"

㉤ 모임

- 일일기도회 : 6월 1일(월) 오전 11시, 기도실
- 구역장모임 : 6월 7일(주) 오후 1시, 기도실

㉥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대상 :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균형 잡힌 이해를 원하는 성도
- 문의 : 길석현 권사

㉦ 소허당 전시 : 박주원 개인전(회화) 6월 5일(금)~14일(주)

㉧ 식당봉사

- 31일(주) : 길석현 최호정 / 강성운 임재호
- 7일(주) : 김연신 김주현 / 김종훈 송홍식



1 부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사랑하기에 아프게 찌르시다”

요한복음 16:7-11

현대인들은 나의 어두운 행실이나 죄악을 마주할 때 남 탓을 하거나 심리적 방어기제 위로 숨는 '자기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 하셨고, 성령의 첫 사역은 우리를 '책망(Convict, 엘렙코)'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파괴하여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사탄의 '정죄(Condemnation)'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프게 찌르시는 '사랑의 메스'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찌르심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찌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직하게 애통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짜 평화는 깨어지고 십자가가 주는 진짜 용서와 온전한 영혼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 [자기 방어] 최근 누군가 내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했을 때,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작동했던 '남 탓'이나 '합리화(방어기제)'는 무엇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마주하기 두려웠던 내 진짜 어둠은 무엇이었나요?
- [복음 적용] 사탄의 정죄(너는 가치 없어, 도망쳐)와 성령의 책망(그것은 죄야, 내게로 오라)의 차이점이 당신의 영적 회복에 어떤 깨달음을 주니까? 이번 주간, 성령의 '거룩한 불편함'이 찾아올 때 자존심을 버리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삼위일체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사6:3)

(목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회중)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가가운 것과 먼 것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경배하도록 성령으로 도우셔서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며 영광스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중) 아멘.

찬 송 9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은혜와 사랑과 교제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며 주님의 길을 벗어나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신실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190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스가랴 12:10-13(1323) 김성보 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4-8(328) 김성보 집사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씬 목 상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6:7-11(174) 유정희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사랑하기에 아프게 찌르시다』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유정희 권사

찬 송 280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